



## 공간은 교육이다

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행복한 공간 이야기

지은이 김경인 | 판형 148×210

페이지 292쪽 | 정가 18,000원 | 분야 인문

발행일 2023년 1월 3일 | ISBN 978-89-278-7960-2 03540

문의 조한별(cho.hanbeaul@joins.com)

## 공간에 대한 경험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학교 공간 바꾸기 프로젝트의 국내 권위자 김경인이 이야기하는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4가지 공간 이야기

천편일률적인 건물이 가득한 도시공간에서 자라는 한국의 아이들. 꿈과 창의력이 부재한 공간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과연 어떤 어른이 될까? 네모난 아파트에서, 네모난 교실에 갇혀 압박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까?

좋은 공간은 그 자체가 교과서이자 교육이다. 그리고 부모가 선택하고 만드는 좋은 공간에서 자라는 아이는 성장하며, 행복한 경험을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아이들 공간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과 철학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전작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의 저자이자, 학교 공간 바꾸기 프로젝트의 국내 권위자인 김경인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간을 총 4가지로 분류해 그간의 경험담과 분석을 통해 명쾌하고도 깊게 풀어낸다.

### + 출판사 서평

팬데믹 시대를 겪은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은 과연 어떤 곳일까?

한국 학교 공간의 혁신 스토리를 담아낸 책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의 저자이자, '학교 공간 바꾸기' 프로젝트의 국내 최고 권위자 김경인 (주)브이아이랜드 대표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4가지 공간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담아낸 인문서, 《공간은 교

육이다》를 펴냈다.

‘좋은 공간은 그 자체가 교과서이자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이 책은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 학교 공간 바꾸기 프로젝트의 최고 권위자로 활동한 저자의 다채로운 경험담을 담아내고, 또 부모로서, 경관&공간 디자이너로서의 깊은 소회와 철학을 담아낸 책이다.

아이가 성장하며 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아이의 경험이 쌓여 그 경험이 한 사람을 이룬다면, 과연 내 아이를 성장하고, 만들게 하는 공간은 어떤 곳일까? 본 도서는 좋은 공간은 그 자체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공간이 아이들의 사고, 행동, 인성, 감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아이를 위한 행복한 공간’을 살펴보고, ‘아이의 잠재력과 감성을 키우는 공간’을 탐색한다.

초등학교부터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집에서 조차 쉴 수 없는 아이들의 현실을 들여다 보며, 교육의 해답을 무엇보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디자인’에서 찾고 있다. 이 책은 신경건축학에 근거하여 아이들의 주거공간에서부터 교육공간, 문화공간, 도시공간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에 공간혁명이 필요한 4곳(주거공간, 교육공간, 문화공간, 도시공간)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아이들이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편히 쉬고 공부할 수 있는 집(주거공간)이 갖춰야 할 다양한 모습, 학업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자연스럽게 친구와 함께 소통하며 꿈을 향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공간)가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쉴 틈을 주며 집중력 또한 높일 수 있는지, 아이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창의력을 키워주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문화공간)을 우리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빼곡한 마천루 사이에서도 잠시 하늘을 보고 녹지에서 쉴 수 있는 인간 친화적인 도시(도시공간)에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어른들이 앞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또 실행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다.

---

#### + 지은이 소개

### 김경인

‘학교 공간 바꾸기’ 프로젝트의 국내 최고 권위자. 현재 (주)브이아이랜드 대표로 경관 및 공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십수 년 동안 삭막한 학교 공간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사장을 거쳐, 2014년 서울시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사업의 총괄디렉터로 활동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강동구의 도시경관 총괄기획자이자, ‘우리가 꿈꾸고 만드는 행복학교’의 총괄디렉터를 맡았다. 서울시의 1,300여 개 학교 화장실의 공간 디자인을 개선하는 기반과, 국내 교육 공간 복지의 기틀을 마련한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희대학교 조경학과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거쳐 일본 교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했다. 1,000건이 넘는 경관과 색채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심의 및 자문위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를 실천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 국토부장관상, 국무총리 표창,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저서로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 등이 있다.

---

#### + 차례

들어가며 | 공간은 곧, 교육이다

## 1장 우리 아이는 어떤 곳에서 살아야 할까\_주거공간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  
녹지가 있는 곳에서 자란 아이가 영리하다  
아이들의 꿈은 집에서 자란다  
집을 바꿀 수 없다면 인테리어를 바꾸자  
아이의 학습 능력을 상승시키는 '거실공부'  
책상 위치만 바뀌도 아이의 성적이 달라진다  
+1 아이를 위한 1평 공부방 만들기  
+2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10초 정리 정돈법

## 2장 학교공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_교육공간

학교공간은 곧 교과서다  
학교 폭력을 줄이는 녹색 환경  
'마음풀' 공간의 기적  
도서관에 빈백이 있어야 하는 이유  
창의적인 생각을 만드는 복도와 로비  
아이의 창의력을 키우는 컬러  
건물이 놀이터가 된 후지 유치원  
+1 천장의 높이는 창의력에 영향을 준다

## 3장 아이의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는 곳\_문화공간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 창의력은 시작된다  
아이가 가장 처음 만나는 예술은 장난감이다  
모두가 소통하는 공간  
책을 싫어하는 아이도 책을 읽게 만드는 도서관  
미술관, 아이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 공간  
+1 아이들과 함께 제대로 관람하고 즐기는 법  
+2 아이와 함께 보기 좋았던 전시 추천

## 4장 아이의 미래를 만드는 곳\_도시공간

좋은 디자인은 긍정을 낳는다  
살고 싶은 동네 1위, 자연 접근성  
5초마다 자극을 주는 거리  
공공 건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공공 조형으로 예술이 일상이 되도록  
사람을 키우는 도시, 가나자와  
+1 가나자와의 21세기미술관

나가며 | 우리가 만든 도시, 도시가 키운 아이

---

### + 책 속에서

미국의 환경심리학자 리처드 테일러는 공공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연 환경과 아동 심리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했다. 거주하는 곳의 녹지량에 따라 아이들이 얼마나 강한 집중력, 충동 억제 능력, 만족 지연 능력을 가졌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녹지가 많은 집에 사는 아이가 집중력과 충동 억제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 주변 유혹에 바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지연시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만족 지연 능력이 높았다. \_1장 우리 아이는 어떤 곳에서 살아야 할까\_주거공간 중에서

청소년들이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 '마음풀'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일중학교에 처음 만들어졌다. 서울시가 평소 디지털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구상하고 조성한 곳이다. 아이들이 꽃을 심거나 돌보며, 마음을 돌보고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마음풀'이란 이름을 붙였다. 학교 내 빈 교실에 조성된 마음풀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가 마음을 풀 수 있는 공간, 풀이 자라나는 공간, 마음을 충전(full)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_2장 학교공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_교육공간 중에서

아이가 늘 있던 공간, 늘 다니던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탐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은 아이들의 야지트가 될 수 있다. 어린이날에 아이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는 것보다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특별한 문화 공간에 데려가는 것이 아이에게 더 많은 기억과 더 깊은 추억을 남긴다. 공간은 교사보다 앞선 곳이어야 한다. \_3장 아이의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는 곳\_문화공간 중에서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왜 지루한 형태를 하고 있을까?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기존의 디자인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평수나 가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2억 원짜리 아파트나 20억 원짜리 아파트의 특징과 문제점이 유사할 정도다. 많은 아파트 건설업자는 아파트를 파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후에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_4장 아이의 미래를 만드는 곳\_도시공간 중에서